

2. 지리역사

□ 면적

- 페루의 총 국토 면적은 약 1,285,000 km²
-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에콰도르와 콜롬비아가 북쪽에 있고 브라질이 동쪽, 남동쪽으로 볼리비아, 남쪽으로는 칠레와 접함

□ 인구

- 총인구 : 3,103만 명 (2011년 기준)
 - 남자, 여자의 비율이 거의 50% 대 50%으로 균형을 이룸

□ 기후

- 페루는 적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안데스 산맥과 흠볼트 해류의 영향으로 지형과 기후가 다양함
- 해안 지방은 날씨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적으며 북쪽 산자락을 제외하면 매우 습함. 산지 지방은 여름에 비가 잦으며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과 습도가 떨어짐. 정글 지방은 비가 아주 많이 오고 날씨도 무더움. 남부 끝 지역은 겨울이 춥고 계절에 따라 비가 많이 옵니다
- 리마 평균기온은 5월~10월(동절기) 10°C~15°C, 11~4월(하절기) 22°C~30°C

□ 한국 교민 수

구분		지역 총계				
		남	여	계		
재외동포총수		578	727	1,305		
거주자격별	외국국적동포		14	10	24	
	재외국민	영주권자	151	191	342	
		체류자	일 반	403	506	909
			유학생	10	20	30
		계		564	717	1,281
재외국민 등록 수		484	373	857		

구분		주요 지역							
		리마			기타				
		남	여	계	남	여	계		
재외동포총수		-	-	-	-	-	-		
거주자격별	외국국적동포		14	10	24	-	-	-	
	재외국민	영주권자	133	181	314	18	10	28	
		체류자	일 반	379	489	868	24	17	41
			유학생	10	20	30	-	-	-
		계		536	700	1,236	42	27	69
재외국민 등록 수		-	-	-	-	-	-		

* 출처 :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(2011)

*자료기입일 : 2013년 1월 17일

○ 1,305명

○ 페루 이민의 역사는 약 30여 년 정도임

- 1990년대에 후지모리 집권 이후 볼리비아, 칠레, 아르헨티나, 파라과이, 브라질 등에서 교민들이 이주하기 시작
- 교민들이 종사하는 분야로는 요식업(주로 한식당), 원단 수입, 자동차 부품, 자동차 정비, 건설업 등으로 굉장히 다양함

□ 정부 형태

- 국명 : Republic of Peru
- 정치 체제 : 대통령 중심제
- 페루는 대통령제의 대의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다당제를 채택함.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이며 5년마다 선출되고 연임은 불가능함.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지명하며, 총리의 권고에 따라 나머지 각료를 임명함
- 페루 의회는 단원제이며, 5년 임기의 의원 120명으로 구성됨. 법안은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입안하며,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하여 대통령이 공포함

□ 정치 동향

- 2014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것이며 2016년에는 다음 대통령 및 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임.
- 현재로서 유망한 대통령 후보로는 보수(사실은 무이념에 가까움)를 표방하는 인기주의 정치인 게이코 후지모리(Geiko)

Fujimori), 前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(Alejandro Toledo, 2001-2006), 삼선을 노리는 前대통령 알란 가르시아(Alan Garcia, 연임이 헌법상 불허이므로 2011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음) 정도이나 알란 가르시아는 출신당(Apra)의 부패문제 등으로 힘이 약해질 것으로 보임.

- 당연히 유망 대통령 후보로는 금년 우말라 대통령에게 敗한 게이코 후지모리(Geiko Fujimori), 2명의 前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(Alejandro Toledo, 2001-2006), 알란가르시아(Alan Garcia, 2006-2011)가 예상되며 이들은 금년 6월 의원 선거에서의 패배로 인한 의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.
- 現 우말라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직 연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정치 야심이 큰 부인이 역시 다음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음.

□ 국가원수

- 오얀따 우말라 (Ollanta Humala) 대통령 (2011년 7월 취임)

□ 수도 및 주요 도시

- 수도 : 리마 Lima
- 주요 도시

	주요 도시	인구(명)
1	Lima	7,737,002
2	Arequipa	841,130

3	Trujillo	747,450
4	Iquitos	437,620
5	Cusco	312,140

□ 한국과의 관계

- 국교수립 : 1963년 4월 1일 (북한과는 1988년 수교)
- 페루의 對 한국 정책은 원칙적으로 중립 불간섭 태도를 견지하며 남·북한 간 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함. 페루는 상호보완적 경제-기술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페루의 각종 경제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기대함. APEC 정상회의(2005), FTA 체결(2010)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다수 이루어짐
- 주요협정 : 통상협정(1974), 경제과학기술협정(1981), 입국사증면제협정(1982), 문화협정(1983), 투자보장협정(1993), 남극협력협정(1996), 관광협정(2002), 범죄인도조약(2003), 자유무역협정(FTA)(2010.11.15) 등
- 2012년 5월 10일 페루 오안타 우말라(Ollanta Humala)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국빈 방한하였음. 금번 국빈 방한은 2011년 7월 취임한 이후 첫 방한으로 일정은 총 사흘간 진행되었으며 10일 오후 열린 양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韓-페루 통상·투자, 자원·에너지 협력,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함.
- 또한 우말라 대통령은 남은 방한 기간 동안 국립 현충원 방문, 여수박람회 개막식 참석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시찰,

한국 기업인 투자설명회 참석 일정을 소화했으며 2010년 당시 미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이중과세방지과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은 금번 방한기간 동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체결됨.

-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 소득과 사업이윤, 국제운수 소득, 배당, 채권소득, 사용료 및 양도소득으로 대상 소득 별로 거주지국 또는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페루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페루 오안타 우말라 대통령 참석 韓-페루 정상회담 (2012년 5월)

- 2012년 5월 10일 페루 오안타 우말라(Ollanta Humala)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국빈 방한하였으며 일정은 총 사흘간 진행되었으며 우말라 대통령이 2011년 7월 취임한 이후 첫 방한이었음.
-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오후 양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韓-페루 통상·투자, 자원·에너지 협력,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무, 경제, 과학기술, 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페루에 연구소를 설립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함.
- 또한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페루는 2010년부터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이중과세방지과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발표한 것으로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, 사

업이윤, 국제운수소득, 배당, 채권소득, 사용료, 양도소득 대상, 소득 별로 거주지국 또는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.

- 위 조약의 체결로 과세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세액 공제가 허용됨.
-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부과가 방지되어 페루 진출 국내 기업들에 실질적 혜택이 기대되는 바이며, 이명박 대통령과 우말라 대통령은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‘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’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데 합의함.
- 우말라 대통령은 방문기간 동안 정상회담 외 국립 현충원 방문, 여수박람회 개막식 참석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시찰, 한국 기업인 투자설명회 참석 일정 등을 소화함.